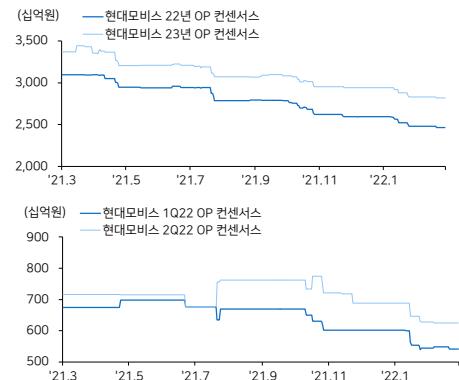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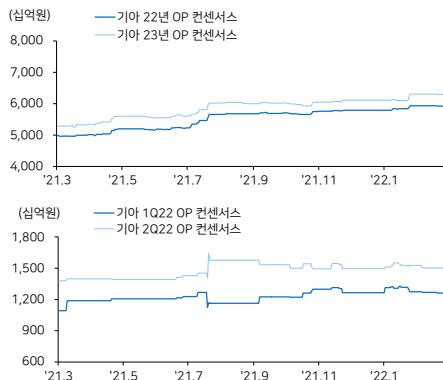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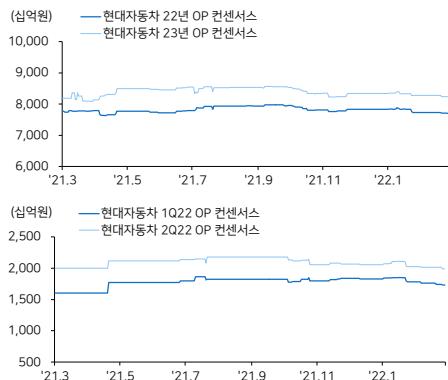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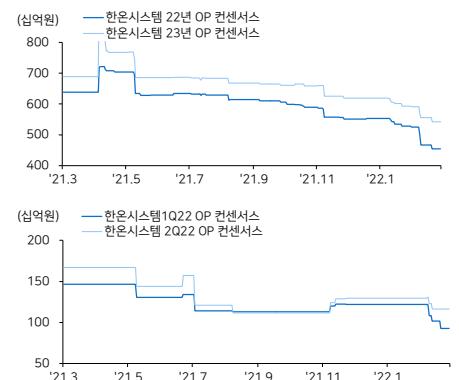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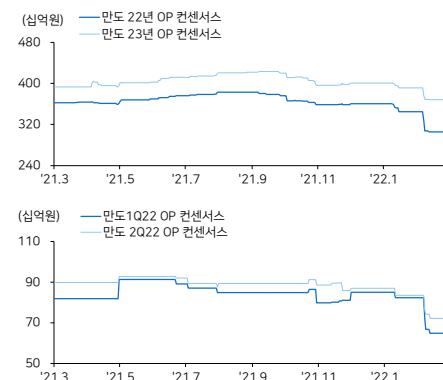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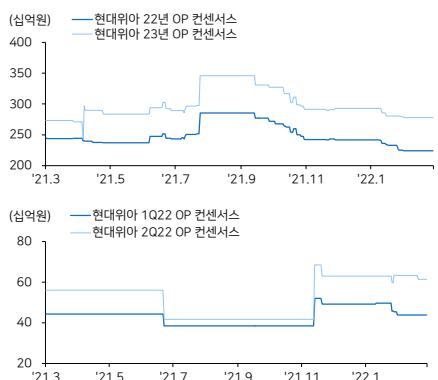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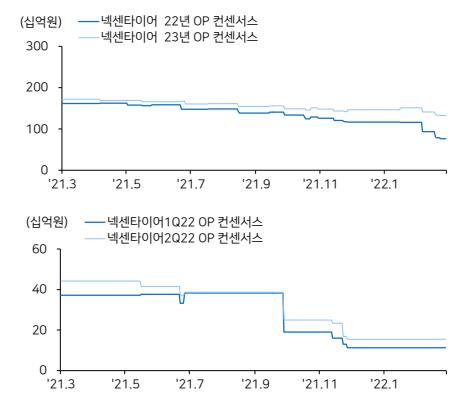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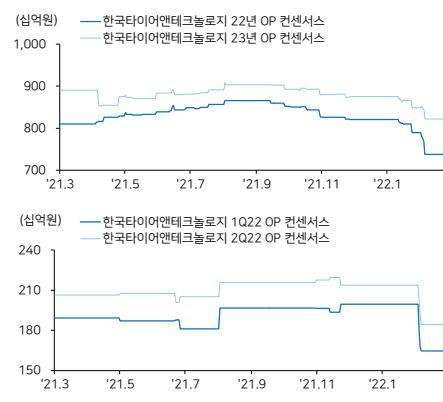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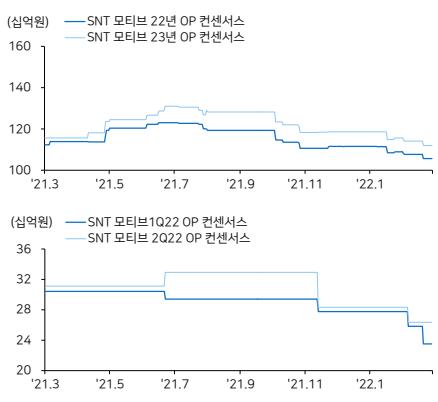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아이오닉6, 유럽 최첨단 차관 담금질…국한 테스트 (THE GURU)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6의 국한 테스트가 유럽 최첨단 지역에서 진행될 현재까지 예상된 성능은 배터리 77.4kwh, 주행 거리 약 500km, 80% 충전 소요시간 18분 정도이며, 생산은 충남 아산공장이 맡을 예정이다.

<https://bit.ly/3sz70IG>

현대차가 중고차에 사활 걸 감춰진 이유… 신사업 위한 '데이터' (국민일보)

현대그룹의 중고차 사업 진출은 완성차·생애주기 전반을 관통하는 데이터를 이용, 금융·보험·운송·정비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함이라는 분석. 또한 앞으로 전기차가 매물로 대거 등장할 시기 역시 얼마 남지 않음.

<https://bit.ly/3ppHbJ6>

Volkswagen warns of production cuts as Ukraine crisis hits suppliers (Reuters)

폭스바겐은 우크라이나·공급업체들의 납품 어려움으로 3월 1주차 Zwickau/Dresden 전기차 생산 중단, 3주차 불포스부르크 공장 생산 중단을 발표했으며 향후 주가적으로 생산을 충단할 여지가 있다고 밝힘.

<https://reut.rs/3Ht3wf2>

Panasonic announces start of Tesla 4680 cell production by March 2024 (electrek)

파나소닉은 24년 3월 이전 테슬라의 4680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투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으며, 일본 서부 와카야마 공장에 새로운 두 개의 생산라인을 건설하여 '24년 3월 이전 양산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3lyYPSc>

기아 EV6, 한국차 최초 '유럽 올해의 차' 수상 (ZDNet Korea)

기아 EV6가 한국차 최초로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시상식인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 조형·성능·공간 등 여러 평가 항목에서 총 279점을 받으며 1위를 차지함. 2위는 르노 메간 e-테크, 3위는 현대차 아이오닉5 차지함.

<https://bit.ly/3MhcmQp>

美 부동산 시장의 진화…자율주행트럭 물류허브까지 손댄다 (글로벌이코노미)

미국 부동산 투자 업체 '일터라 프라퍼티 그룹'은 자율주행 트럭업체 '임바크 트럭스'와 제휴하여 자율주행 트럭 물류허브 확보를 계획. 자율주행 트럭의 도심 진입이 어렵기에, 외곽 물류 허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https://bit.ly/3vwagX1>

Stellantis aims to double revenue by 2030 as it goes electric (Reuters)

스텔란티스는 '30년까지 75개 EV를 출시, 연매출 3천억 유로(현재의 두 배), Margin, 유지 목표를 제시함. 또한 '30년까지 차종 판매의 1/3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풀레 반도체 공급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https://reut.rs/3K7hbU6>

Lucid Delivered 125 Cars in 2021, Lowers 2022 Production Forecast (InsideEVs)

루시드의 4Q21 실적발표에서 '공급망과 물류 문제'로 2022년 생산 전망을 2만대에서 1.2~1.4만대로 하향 조정함. 또한 에리조나 공장 확장이 진행 중이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H22 두번째 공장 신설을 위한 토지를 임대함.

<https://bit.ly/3Mi9liX>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